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즐거운 노년 표 글루미족'을 위해

"삼겹살 구워 혼자 먹어도 맛있네."라는 신문 제목을 읽은 적이 있다.

우울과 고독을 즐기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게 된 현대 도시인들. 이른바 글루미(gloomy)족(族)을 위해 '나 홀로' 손님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식당이야기에서 이 제목이 나왔다.

삼겹살 굽는 철판을 바(bar)식으로 만들어 손님 건너편에서 종업원이 삼겹살을 구워 서비스하는 식당으로 특히 '나 홀로' 손님을 우대하는 모양이다.

그러니 이 울적한 장마철에도 그 울적함을 즐기는 글루미족이 '삼겹살 구워 혼자 먹어도' 맛있을 수밖에. 아니 적어도 글루미족이라면 식당 서비스를 받지 않고 집에서 혼자 삼겹살 구워 먹어도 맛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날마다 복잡함을 더해가는 도시생활에서 어쩌면 고독이나 우울함은 일종의 도피처일수도 있다. 그러니 글루미족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글루미족 뿐인가. 은둔형 외톨이를 선호하는 코쿤 족은 누에고치 안에 칩거한다는 뜻일 것이고,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 불리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국말로 쉽게 하자면 '나 홀로 방콕 형'이다. 모두가 현대적 특성들을 잘 보여주는 생활 유형들이다.

핵가족에서 좀더 분화한 독신세대가 늘고 있는 현대를 두고 '혼자 식사하는 시대'란 말도 한다. 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은 물론 혼자 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사람도 이제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다.

독신세대의 증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이들을 위한 소량의 식품을 포장해 판매하고 판매량 역시 늘고 있다.

현대 도시 젊은이들은 이렇듯 '혼자' '외로움' 등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간에 선호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이나 울적함이 스스로 선호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몰린 경우라면 그것은 즐길만한 것이 못된다.

대부분의 노인세대는 고독이나 울적함을 선호한 적이 없다. 그들이 집에서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면 '혼자 먹어도 맛있다'가 아니라 어쩌면 눈물을 흘리며 먹고 있을지 모른다.

최근 은퇴자와 예비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은퇴자들은 '은퇴해 보니 은퇴자금이나 여생의 모습이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렵고 다르더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한국사회도 곧 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스스로 선호한 고독과 울적함이 아닌, 그렇게 내 몰린 고독과 울적함의 세대가 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스티브 폴랜이라는 사람이 쓴 <다 쓰고 죽자>는 한동안 미국 노년들을 사로잡았던 책. 여기서 폴랜은 '은퇴 후 영원한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라' 고 충고한다.

그 휴가 때문에 건강은 나빠지고 정신도 녹슨다는 것이다. '모아둔 재산이 있다면 자식에게 물려 줄 생각 말고 여생을 최대한 즐겨라'고도 했다. 유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돈 가지고 다툴 일도, 가산 탕진할 일도 없다는 것이다.

폴랜의 충고는 적어도 여유 있는 은퇴자금을 필요로 한다. 한국 대부분의 외로운 노년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

대신 인도 고대로부터 전해 온 인생 사계(四計) 가운데 노년의 계획인 '수행을 위해 혼자 숲으로 간다'의 노계(老計)를 권하고 싶다. 이런 노계를 세우면 선호하지 않은 고독이라 해도 글루미는 결코 울적함만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즐거운 노년 표 글루미족'이 탄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종교계, 특히 불교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기도 하다.

불자의 눈

'예스 평창' 불교계에 남긴 것

'예스 평창'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도전은 아름다웠다. 7월 5일 201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가 러시아 소치로 결정되는 순간 불자와 국민들은 허탈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절망하진 않았다. 그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열심히 '도전'했기 때문이다. 그 도전을 통해 강원도는 세계에 알려졌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기억하는 세계인에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열정을 보여주는 기회였다.

불교계도 이루지 못한 원력을 아쉬워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열망에 함께 손잡고 기원했던 아름다운 동참의 공덕을 갈무리 할 때다. 불교계는 서울 조계사에서 대형 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기원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 준 바 있다. 무엇보다 강원도에 위치한 조계종 교구본사 신흥사와 월정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유감없이 결집했고 드러냈다. 두 본사의 주지 스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두 교구본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이 지역민과 함께 각종 기원 법회와 행사를 전개하는 동안 불교는 지역민들에게로 바짝 다가갔고 그들은 불교의 향훈을 느꼈을 것이다. 공동의 염원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불교는 산중의 종교가 아니라 생활 현장에 존재하는 가르침임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큰 포교를 한 것이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교계가 흘린 땀은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라는 강한 이미지로 남았다. 이 경험을 토대로 거시적인 포교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씨앗은 뿌리고 수확은 못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공원 내 사찰의 '공적가치'

조계종이 정부를 상대로 국립공원내 사찰 소유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전통사찰 경내지를 관리하는 것의 위헌성도 따지기로 했다.

조계종과 정부가 상당한 긴장관계로 빠져들고 있다. 올 연초부터 공원입장료 징수가 폐지되고 문화재관람료의 징수와 관련한 문제를 푸는데 종단과 정부의 손발이 어긋난 결과다. 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6개월간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조계종, 환경단체가 묘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갈등으로 번졌다.

조계종이 강경수로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인데, 사찰 소유 토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주장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종교라는 신성한 범위를 침해한 관계법과 그간의 관례들을 근본적으로 고쳐놓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사찰 소유의 토지는 8%에 가깝다. 이 수치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공원 내 탐방객이 즐겨 찾는 곳 내지는 주요 탐방로가 대부분 사찰 소유 토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풍치지구 뿐 아니라 국보 17점과 보물 61점을 포함한 주요 문화재도 대부분 사찰 경내에 소재한다.

문화재관람료 관련 문제에 있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찰의 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지금 조계종이 강경수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재산권 주장'이 아니라 바로 공적가치에 합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바로 이 수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19. 대학채플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타종교 학생들에겐 '고문'…강제성 재고해야

대학의 기능은 교육과 연구이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정신이야말로 대학의 근본 바탕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도 종교에 관한 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꽉 막힌 공간인 것은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종교계 사립대학에서 제도적으로 타종교인을 배제하는 대표적이 예는 채플과 종교과목의 강제, 특정종교인만의 교직원 임용 등이다.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특수학교라면 모를까, 일반종합대학에서 어떻게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수월성보다 특정종교의 선교가 더 중요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학채플은 기도, 찬송 등 기독교 예배의식으로 졸업 때까지 대개 4학기에서 8학기까지 1주일에 한 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단 한 학기라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타종교 학생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갈등을 호소할 만도 하다. 대학채플과 관련한 쟁점은 무엇인가?

첫째, 종교계에서 세운 학교이기에 '예배나 선교'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언뜻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종교사학들이 끈질기게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제 누가 허용했는가? 교육부가 사립학교를 허가해 주면서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예배와 선교까지 허가했단 말인가? 국가가 교육형성권의 일부를 사학재단에 위임한다고 해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종교사학의 강제예배 관행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너무 오랫동안 직무유기를 한 결과 당연한 권리처럼 굳어진 것일 뿐이다.

둘째, 이미 알고 들어왔으면서 웬 딴소리냐는 논리다. 이것 역시 그럴싸해 보이지만, 약자인 학생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고3 수험생들은 대학으로부터 채플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 공지를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을 여유도 없다. 타종교 학생들에게 생소할 채플의 성격에 대해 사전 설명이 없는 것은, 아마도 입시요강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순간 바로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 아닐까. 그러나 일단 입학한 학생들은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종교사학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입학 시 학생들에게 형식적으로라도 '서약'이나 '선서'라는 것을 하게 하는 것도 채플 합리화를 위한 사전 요식행위이다.

셋째,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면서 종교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강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 중국 동북부지역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 이 십자가는 서울 p교회 사람들이 초등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러 왔다가 무차별적으로 걸어준 것이라고 한다.

자인 종교사학들이 "싫으면 다른 학교로 가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국민의 성원과 국가의 각종 혜택 속에서 성장한 사학재단의 배은망덕이며 무책임한 말이다. 대학입시는 전국민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이다.

대학교육의 사립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실에서 특정종교 대학들을 제외하고 선택하라면 타종교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은 차별적으로 심히 제한된다. 국가가 종교간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종교사학들을 무차별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은 후유증이다. "학교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아니한 한국적 특수상황을 외면한 채, 학생의 입학 · 재학 관계를 학생과 학교 간 당사자만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따른 단순한 사법(私法) 상의 계약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학 책의 한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국가가 제3자의 입장으로 피해가서는 안 되며 정책적으로 적극 개입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넷째,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종의 자유'이다. 입학 시 받아들였다고 해서 졸업 때까지 종교적 신념이 바뀌지 말란 법은 없으며, 개종 후에도 대학이 특정종교 의식을 계속 강제한다면 종교폭력일 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종의 자유가 자유롭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일 것이다. 종교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민주사회의 기독교 대학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이다. 적어도 강제 예배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몸도 체질이 다 달라 어떤 사람에겐 좋은 약이 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에겐 특정종교 의식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이들에겐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계 대학들이 먼저 자각하여 강제 채플을 개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거대한 사학재단의 횡포에 약자인 학생이나 교수가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또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할 국가나 지도자들은 학생의 인권에는 무감각하면서도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기만 하다.

대학사회에서의 야만적인 종교강요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들의 세심한 논의와 정부의 진지한 재검토가 시급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대전 충북지사	대전 / 충북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